

참사 원인 규명은 '감감'...무안공항선 눈물의 합동 차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달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지난 29일로 한 달이 지났다.

희생자 수습은 일단락됐지만, 참사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전 4분간 상황이 누락돼 진상규명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양쪽 날개에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흔적만 확인됐다. 유가족은 첫 명절인 설 연휴를 무안공항에서 함께 의지하며 보냈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참사원인 규명 장기화= 제주항공 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 모두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흔적이 확인됐다.

당초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사고기의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나면서 엔진-전자 계통까지 '셋다운'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24일 무안국제공항에 진행된 유가족 설명회에서 "사고기 엔진을 조사한 결과 양쪽 엔진 모두 잇달고 열흔이 발견됐으며, 유전자 분석 결과

사고조사위 예비보고서 공개

양쪽 날개 엔진서 잇달·혈흔 확인 블랙박스 4분간 누락, 규명 장기화 엔진분해검사 등 전방위 조사키로

'가장오리'의 잇달·혈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또한 사고기가 착륙 시도 후 복행하는 과정에서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 기록되지 않았던 4분여간의 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정황도 확인했다.

FDR·CVR 기록이 동시에 중단된 시점은 오전 8시 58분 50초로, 당시 속도는 161노트(시속 298km), 고도는 498피트(151m)였다.

6초 뒤 조종사는 복행을 시도하며 관제탑에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 선언(메이데이)을 했다. 이어 4분 동안 활주로 좌측 상공으로 비행하다가, 우측으

로 선회해 기존 착륙 시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다.

랜딩 기어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오전 9시 2분 57초에 사고기는 동체 착륙을 한 뒤 활주하다 활주로는 지나쳐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했다.

◇로컬라이저·조류 영향 별도 용역= 사조위는 항공기사고조사 예비보고서 영문판과 한글판을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글판 기준 5페이지 분량으로 된 예비보고서는 사조위가 공식 발표할 첫 보고서다. 예비보고서는 사고 조사 당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사고 관련국에 보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기가 '둔덕'과 충돌 후 화재와 일부 폭발이 발생했다. 예비라고 하지만 한달여 동안 조사한 내용치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오고 있다.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나 블랙박스에 기록이 되지 않은 이유 등은 조사중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고를 키운 시설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로컬라이저)시설의 콘크리트 지반의 설치 시기와

재원 등의 내용도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번 예비보고서 발간은 사고조사의 총 12단계 절차 중 5단계다. 이후 사조위는 검사·분석·시험(6단계)을 진행한다.

사조위는 명확한 사고 원인조사를 위해 조류충돌, 엔진분해검사, FDR·CVR 자료 분석, 관제자료, 부품 정밀검사와 방위각 시설물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엔진을 분해해 엔진 상태와 충돌 조류에 대한 추가 시료 채취에 나서는 한편 잔해 정밀 조사, 블랙박스 분석, 비행기록문서 확인 등 항공기 운행 전반에 대해 분석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 둔덕과 조류의 영향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연구할 계획이다.

◇유가족 합동차례=설 당일인 29일 오전 무안공항 1층 합동 분향소에서는 다시금 오열이 이어졌다.

이날 희생자들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놓인 무안공항 1층 합동분향소에 차례상이 차려졌다. 전날 유가족들이 함께 만든 전과 산적, 생선 등이 차례상에 가지런히 올랐다.

불과 한 달 전까지 함께 식사를 하고, 통화로 안부를 묻던 가족들에게 제를 올리게 된 유가족들은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라며 흐느꼈다.

딸을 잃은 한 아버지는 합동분향소 방명록에 '어제의 모습을 영원히 아빠의 가슴 속에 기억할게. 설날에 아빠가'라는 글을 남겼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 역시 '나의 왕자님, 보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해'라고 적었다.

50대 딸의 차례를 지내게 된 유가족 A씨는 명한 표정으로 차례상을 바라봤다.

A씨는 "사고 10여 일 전이내 생일이라 딸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됐다"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리 불러도 딸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진짜 내 딸이 가벼워진 것 같다. 다시는 볼 수 없나 보다"며 울먹였다.

박한신 유가족대표는 "오는 2월 15일 49재를 지내고 나면 공항에서의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가족들은 광주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투명한 공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안=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홍콩항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이 지난 28일 밤 10시 30분께 이륙 준비를 하던 중 꼬리 부분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신문 전강용 기자>

이번엔 에어부산 화재...프랑스 조사위 참여

합동 감식 위한 사전 회의 열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조위는 30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합

동 감식을 위한 사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항공기 양쪽 날개에 3만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기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사고가 난 화재 현장을 찾아 감식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 10여명도 김해

공항에 도착해 사고 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사고가 난 에어버스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항공기업이 설립한 회사로, 프랑스에 본사가 있다.

사조위는 사고 조사를 위해 전날 화재가 난 항공기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항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화재 원인으로 휴대용 배터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광주·전남 사전사고 잇따라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하고 부부싸움 중 분신한 남편 화상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양계장 수리 중 추락사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 광주·전남 곳곳에서 살인·방화·사망사고 등 사전사고가 잇따랐다.

광주시 동구에서는 함께 사는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동부경찰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A(64)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2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80대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히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유가족은 "A씨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께 함평군 한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업주인 40대 B씨가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본인 뒤통에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8분 만에 꺼졌고 B씨 아내도 어깨와 등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연휴 기간 최대 18.5cm의 눈이 내린 광주·전남에 교통사고도 인한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26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 인근에서는 승용차 운전자 60대 C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같은 날 밤 9시 30분께에도 동구 소태동 동구문

화센터 앞 도로에서 60대 D씨가 몰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70대를 덮쳐 숨지게 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는 음주·무면허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들을 교통사고 특례 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께 해남군 해남읍의 한 양계장 공사현장에서 양계장 수리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3m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거푸집 공사를 위해 3m 깊이 구덩이가 파여있었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광주는 일평균 112신고가 전년 대비 4.8%(58.8건) 감소했다. 중요범죄 신고는 19.5%(7.1건) 증가했지만 절도는 21.8%(2.4건), 폭력은 20.6%(6.4건)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전년 대비 명절 연휴 기간 일 평균 아동학대 신고가 64.4% 감소, 가정폭력 신고는 6.2% 줄었다.

광주지역 명절 연휴 기간 일평균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41.8%(9.8건→5.7건), 교통사고 부상자는 60.8%(15.8명→6.2명) 감소했고, 전남에서도 전년 대비 일 평균 교통사고가 58.8% 줄었으며 부상자 역시 64.7% 감소했다.

/김디나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